

건강하게 사는 약속 인하대병원이 이루어갑니다

인하대 병원

www.inha.com

Well-being Interview 바르게 걷기 전도사 스윙워킹 클럽 정성열

의학정보 중년 남성의 우울증

스페셜 컬럼 '아픈 고객'을 위한 배려는 불꽃같은 마케팅 수단!

전공의 24시 태안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리라

01-02

2008 Jan·Feb Vol.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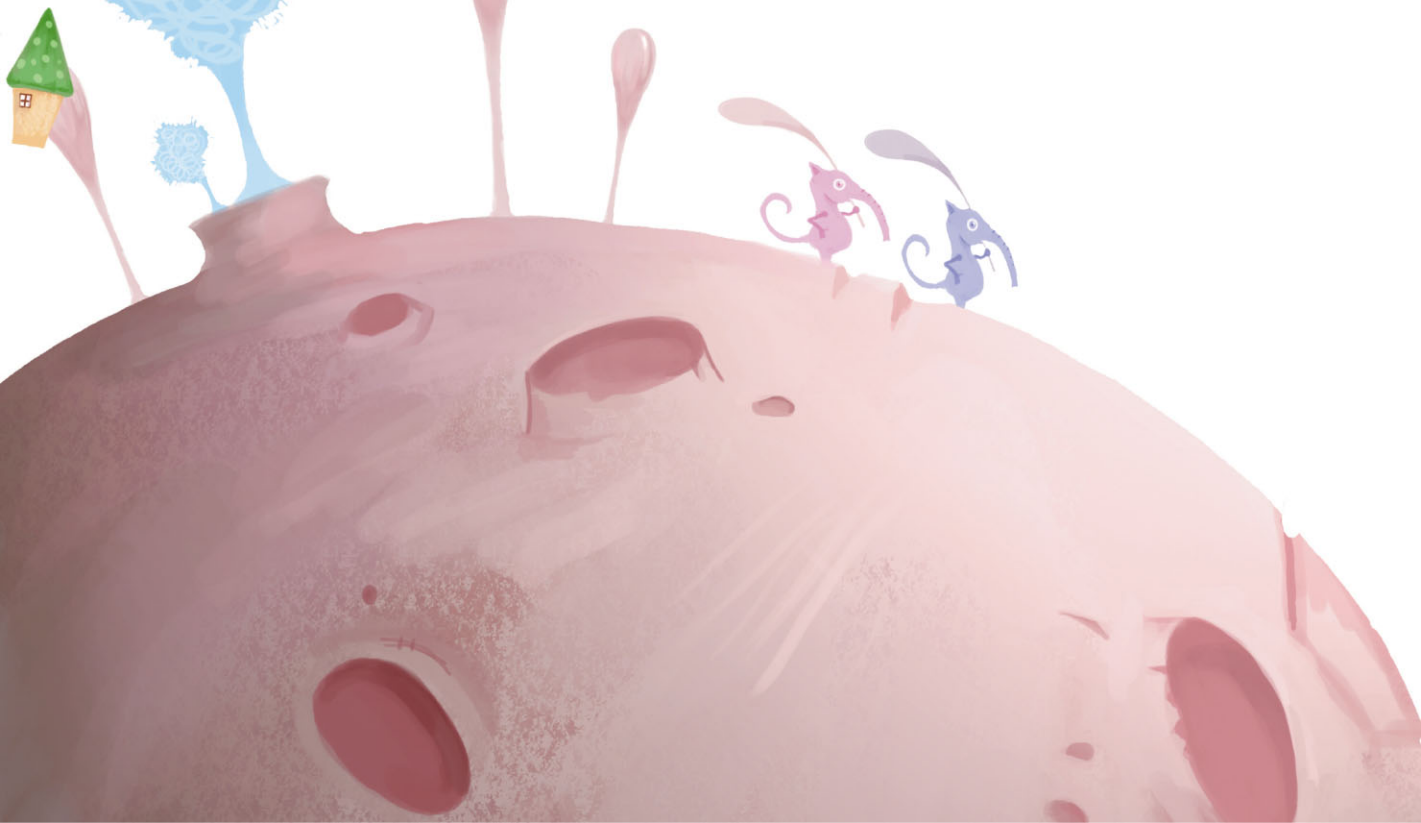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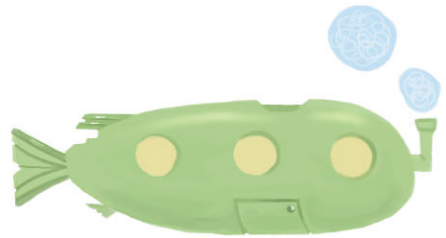
친구

천양희 | 시인

좋은 일이 없는 것이 불행한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없는 것이 다행한 거야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세상이나 원망하던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더러워진 발은 깨끗이 씻을 수 있지만
더러워지면 안될 것은 정신인 거야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세상에 투덜대던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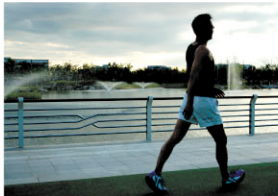
자기 하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은
실상의 빛을 가려 버리는 거야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세상에 발길질이나 하던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04	신년사	무자년 어려움은 걸림돌 아닌 디딤돌, 최고가 되리라는 생각으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06	Well-being Interview	잘 걸으면 성인병, 복부비만 한방에 해결됩니다!
08	의학정보	의지와 상관없이 식욕, 성욕, 집중력이 왜 곤두박질?
10	영양정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행복한 영양소
12	센터소개	당일 진료! 당일 검사! 처방까지 한자리에서 시행
14	장비소개	뛰어난 고해상도 영상, 음악과 영화 보며 촬영해
16	스페셜 컬럼	'아픈 고객'을 위한 배려는 불꽃같은 마케팅 수단!
20	의료봉사	두어 삼 파면 또 검은 기름, 복구해야 한다는 염원 뿐!
21	전공의 24시	태안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리라
22	글이 머무는 풍경	채혈실이 한혈의 집만큼 문턱이 낮아지길 배우 최강희도 우리병원 문병원 선생님도 한 생명에게 내일을 주었습니다!
24	감사의 편지	아름다운 인연이 전하는 감사의 말
25	특특진료상담	정신분열증도 유전이 되나요? 외

Contents



06



12



21



28

26	특특약물상담	차가운 상태로 주사하면 통증 유발해요
27	협력기관 365 홈케어	최적의 진료 지원하는 종합적인 건강 솔루션
28	포토스크랩	아기들 세상...
29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31	자원봉사안내	자원봉사 신청 및 문의
32	파랑새소식	11월 파랑새 산행 및 12월 파랑새 송년회 인사동정, 발전기금
33	Quiz Quiz	퀴즈 퀴즈 제41회
34	알립니다	건강교실 안내, 무료공개 강좌



New year's Greetings 2008

친애하는 인하가족 여러분!

2008년 희망찬 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소망이 뜻하신대로 이루어지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 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병원 발전을 위해 정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치솟고, 경상 수지 적자, 즉 3고(苦)에 우울한 한 해가 될 것으로 경제 전문기 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수가가 의료계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1.5% 인상에 그쳤으며, 또한 정부는 수 가와 함께 보험재정난을 이유로 비선택진료 의사 확대, 포괄 수 가제 확대 실시 등 의료계를 더욱 옥죄는 의료정책을 추진할 것 으로 보여 금년에도 병원 경영이 위축되어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걸림 돌이라 생각하지 않고 디딤돌로 여긴다면 능히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년은 우리 병원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 리 병원의 모습이 새로워 질 만큼 성장 동력 확충과 환자 편의시 설 개선 및 연구 인프라 확장 등을 이미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첨단병원으로서의 전국 적 명성 확립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 향상을 통한 병원 역 량 확충과 위상 제고를 금년도 경영방침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 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직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 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원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의료계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내 병원뿐만 아 니라 선진국의 유명 의료기관과도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병원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 우는 오히려 설 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일시적인 성장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눈높이에서 경쟁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의 눈높이에 서 바라보는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하가족 여러분들의 철 저한 주인의식과 개개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체'는 곧 도태를 의미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경쟁력은 최고가 되리라 생 각합니다.

둘째,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은 진료 특성화와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소화기센터 확장 공사가 이 제 마무리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환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그 뒤를 이어 당노·비만센터 공 사가 시작 될 것입니다. 또한 3월이면 Robot Cyber knife가 정 상 가동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 편의시설 개선에 있어서는 상급병실 리노베이션, 장례식장 개보수, 환자 편의시 설 확충, 주차장 이용객 불편 등을 개선할 계획이며, 의료정보시 스템 개선 즉 무선랜 구축, DW 도입, 입원 EMR 등을 시행함으 로써 진료서비스를 한층 극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 의 추진 업무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수익의 극대화로 우리 병원

무자년 어려움은 걸림돌 아닌 디딤돌 최고가 되리라는 생각으로 힘차게 출발합시다!



이 지역 의료계를 선도할 수 있는 확고한 위치를 자리매김하는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구 인프라 확충 및 수익모델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및 소득증가 등으로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산업이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임상시험센터도 2006년 확장 개소식을 갖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환경 속에서 국제수준의 임상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우수한 의료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의공학 및 신약 개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며, 지역 내 타 대학, 산학연 협력업체와의 협동 연구를 통해 연구시설과 인력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인프라 확장을 통한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연구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해외 환자 유치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갑니다.

우리는 의료시장 개방 및 의료법 개정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과 무한 경쟁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환경과 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눈을 해외로 돌려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2005년부터 해외 환자 유치사업을 시작한 이래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LA지역의 해외동포들이 주 고객이었으나, 해를 거듭 할수록 미국 전 지역, 캐나다, 중국(홍콩)

등 글로벌화 되고 있습니다.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우리 모두의 역량과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되겠으며, JCI 등 병원에서는 국제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인하가족 여러분!

현대는 '서비스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고객중심의 서비스, 고객감동 경영을 이야기하는 병원은 많지만, 실제로 그것이 현장에서 실천되는 병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병원을 평가할 때 첨단장비나 연구소, 사무실을 보지 않습니다. 그 병원의 직원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었는가가 평가의 기준입니다. 고객과 만나는 최일선의 직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곧 그 병원의 수준인 것입니다. 고객 접점부서에서 일하는 인하가족 여러분은 내가 이 병원의 주인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꿈은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인하가족 여러분께서 화합하여 더욱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주시리라 굳게 믿으며, 새해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나아갑시다.

새해에도 인하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새해아침
인하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우 제 홍**

S라인과 건강해지는 바르게 걷기 노하우

잘 걸으면 성인병, 복부비만 한방에 해결됩니다!

잘 빠진(?) S라인이 범상치 않다. 걷기 운동으로 다져져 군살 없이 탄탄한 몸과 177cm의 웅장한 키는 충분히 호소력이 있는 '몸'이다.

2006년 세계 오래 걷기 대회에서 러닝머신 12시간 이상으로 기네스북 기록을 달성했고 전국 국토대장정 19박20일 1,200km도전에 성공한

걷기 전문 강사 정성열 씨(42세)를 만났다.

1만 보씩 제대로 걸으면 성인병 예방도 되고 발뒤꿈차부터 엄지발가락으로 중심을 이동시키면 복부비만을 해소 할 수 있는 바른 걷기로 건강한 새해 첫 발을 시작해 보자.



부상으로 그만둔 유도선수, 걷기로 아픔 이겨

정성열 씨가 걷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걸음을 걸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부터 시작한다. 유도를 하던 대학 1학년 시절 무릎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운동을 그만두던 그때, 목발을 잡고 김스를 하며 통증에 시달려 지낸 그는, 두 발로 서서 걷는 인간의 본능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더 컸다.

한창 때인 20대에 힘든 시절을 겪으면서 '걸어보고 싶다'라는 본능의 자극에 의해 자연스럽게 걷다보니 통증의 변화를 느꼈다. 무릎에 물이 차, 뺨기를 반복하면서도 걷기는 놓지 않았다. 똑같이 걷는 것 같은데 물이 차는 날이나 통증이 있는 날에 분명 차이가 보였다. 그건 자세와 컨디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었다. 걸음걸이 변화에 따른 것이다.

걷기를 운동으로 시작했던 정성열 씨가 처음부터 전문 강사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체육학과에 입학을 했지만 유도를 접어야 했던 그는 첫 사회생활로 자동차 세일즈를 택했다. 판매왕까지 한 전적이 있는 그이지만 늘 하고 싶은 것은 스포츠 마케팅이다. 학창시절부터 운동선수들의 신체적 변화를 유달리 관심 있게

본 그는 신체적 변화는 환경에 의하여 급격하게 변한다는 것을 느꼈다. 발레리나, 수영선수, 보디빌딩, 역도 등 모든 선수들은 환경에 적응을 하다보면 그에 맞는 신체적 조건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것이 성장기 아이들의 자세를 잡아주는 운동기구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또 1997년 IMF때 막을 내려야 했다.

공황장애 이겨내고 걷기 전문 강사로

자포자기를 하던 정성열 씨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왔다. 코가 막히는 답답함, 캄캄한 하늘의 짓누름에 못 이겨 응급실 찾아 산소마스크를 쓴 적도 여러 번이다. 그래서 또다시 시작한 것이 걷기다. 잠을 잘 수 없었던 밤부터 새벽까지 내내 걸었다. 걷기로 공황장애를 이겨낸 그는 이제 걷기 전문 강사로 다시 태어났다.

“걷기는 운동 이전에 일상이죠. 내 본능에 충실히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운동이라는 목적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동작에 이상한 행위를 더하게 되면 그것은 또 신체적인 다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뭔가를 더하는 걸기보다 인간의 순수한 방법으로 걷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직립보행이 가능한 인체구조가 바른 걷기를 할 때 아름다운 몸, 건강한 몸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똥똥한 사람은 똥똥한 걸음으로 걸어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0.1초 사이에, 앉아 있는 모습의 체형만 봐도 그 사람의 체형이 보이고 기분이 보일정도다. 똥똥한 사람은 똥똥한 걸음으로 걷는다. 여성이 출산 후 체형이 변하는 것도 배가 나온 신체적 변화에서 오는 걸음걸이 때문에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정성열 씨는 바른 걷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기' 즉, 직립 자세라고 강조한다. 직립자세와 보행을 하는 것은 유일하게 인류뿐이다.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양발의 간격을 넓게 벌린다. 그리고 보면 배가 나온 사람의 경우 대부분 양발의 간격이 넓다는 것이다. 양발의 간격은 골반보다 좁게, 가슴을 펴고 무릎은 곧게 한 상태에서 뒤꿈치부터 시작해서 엄지발가락 끝까지 힘을 주어 걷는 원리가 바른 걷기, 허리를 회

전시켜 걷는 '스윙워킹'이 그의 이론이다. 바로 S라인은 이런 바른 걷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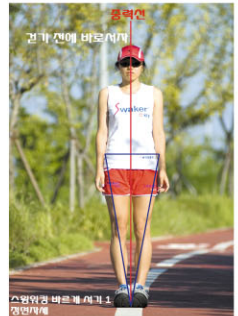
웰빙의 기본은 바른 자세와 바른 걷기

스윙워킹(www.swingwalking.com)동우회 운영, 연수문화원, 국내 대학교 및 보건소 등에서 바르게 걷기 전도 활동으로 바쁜 그다. 인하대학교에서도 역시 강의를 한 바 있다. 또 최근 걷기 연구를 하다 보니 인체구조에 맞는 신발인 '스위커'를 개발하여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의 꿈도 펼칠 예정이다. 이 스위커는 다리가 불편한 자신의 신발을 제작하여 신다보니 이렇게 연구, 개발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2008년 무자년 새해 도전 목표가 하나 있다. 바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다. 인류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바른 걷기가 또 스위커가 작은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다.

웰빙은 마음에 있다는 그, 하고 싶은 거 다하고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행복할 때, 내가 갖는 것 보다 훨씬 큰 보람이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의 웰빙은 여기에 있단다.

100세 건강의 비결 그것은 '퐁(Fun)'과 함께 하는 바른 자세의 보행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자리에 누우면 걷고 싶은 욕구를 더 느낀다. 이처럼 걷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다. 이 본능에 충실한 바른 걷기, 바른 자세를 지키지 않고 다른 운동 방법으로 건강을 찾을 수 없다고 정성열 씨는 다시 한 번 말한다.



걷기에 대한 그의 열정은 충분히 뜨거웠다.

지침이 없다. 아니 오히려 눈빛은 반짝였다.

그에게 걷기는 실패할 때마다 일어서게 해 준 에너지였기 때문일까. 이 하늘 아래에서 그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바른 걷기'임을 믿는다.

글·이정희 | 자유기고가



— 중소기업의 부장인 48세의 K씨가 정신과 외래를 찾아왔다. 큰 키에 잘 생긴 편이었으나 푸석푸석한 얼굴에 찌푸린 미간을 펴지 못하고 있었다. 약 1년 전부터 잠들기가 힘들어 술기운을 빌어 자곤 하였는데 최근 한 달 동안은 술을 먹어도 2~3시간 만에 깨서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의사와의 면담에서 자신은 지금까지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몇 달 전 큰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후부터 걱정이 되고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을 했고 회사 내에서 기를 펴고 다닐 수 없었다고 한다. 자신 보다 젊은 중역이 평소와는 달리 반말 비슷하게 질책할 때에는 당장 사표를 쓰고 뛰쳐나오려고 했지만 가족들 생각에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한다. 쉬어도 피로감은 잘 회복되지 않았고 식욕이 떨어져 잘 먹지 못해 최근 3개월 간 체중이 7~8kg 빠졌다고 한다. 1남 1녀를 두고 있는데 아들은 군대에 입대했고 고3인 딸은 새벽에 나가 밤늦게나 들어온다고 한다.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의 부인도 귀가 시간이 늦어 자신은 텅 빈 집으로 귀가하는 날이 많다고 한다. 근래 성욕이 저하되어 부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은 지가 수 개월이 되었다고 한다. 평소 즐겨하던 등산, 테니스에도 관심을 잃었고 친구 모임에 점점 빠지기 시작하더니 근래에는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호소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신과를 찾게 되었다.

위의 K씨는 전형적인 중년 우울증 환자이며 증상도 비교적 중증으로 생각되었다. 즉시 항우울제 투여 및 정신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상당히 회복되었고 현재는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다.

— 중년 남성의 우울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년기의 심리를 잘 알아야 한다. 중년기는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나 보통 40세에서 60세 사이를 말한다. 흔히 중년이 시작되는 40대가 인생의 황금기라는 표현을 많이 한다. 신체적으로 좋은 건강을 유지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성숙된 시기이다. 직업적으로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이다. 그리고 배우자, 자녀, 부모, 친구들과 더불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때이다. 요즘 흔히 말하는 well-being을 누릴 수 있는 시기이다.

중년기의 과제는 먼저 서서히 시작되는 신체적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다. 인간의 노화는 40세부터 벌써 시작된다. 머리가 벗어지기 시작하고 시력이 떨어지고, 뱃살이 늘어나고 근육의 힘이 떨어지며 순발력도 떨어지기 시작한다. 다음은 자신의 사회적, 직업적 성취를 평가해 보고 미래의 계획이나 목표를 다시 한 번 확고히 세우는 시기이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재평가해 보아야 하는 시기도 이 때이다. 지금의 배우자와 남은 평생을 계속할 것인가를 신중히 생각해 보는 것도 이 시기이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고 회복되기가 어려울 때 혼외정사, 별거, 이혼 등이 따르게 된다. 나이 드신 부모의 뒷바라지, 부모들의 질병과 죽음을 겪는 시기도 이 때이다. 부모를

중년 남성의 우울증

의지와 상관없이 식욕, 성욕, 집중력이 왜 곤두박질?

머리카락이 빠지고 뱃살은 늘고 쉽게 피로해지는 신체변화가 오는 중년!

중년이 되면 성적능력이 서서히 감소할 뿐 아니라 회사, 자녀, 부모에 대한 걱정 등으로

배우자에 대한 성적 흥미가 감소하게 된다.

자신의 인생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길을 찾으려 하는데 불가능 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심한 우울증이 올 수 있다. 내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의지력만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



강민희 교수 | 정신과

돌보는 문제가 부부간 또는 형제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부모의 사망에 따른 심리적인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여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상의 과제들이 잘 극복되어야 정신적으로 건강한 중년을 보낼 수 있다.

심리학자인 Erikson은 중년을 생산성(generativity)을 이루는가? 또는 정체(stagnation)에 빠지는냐의 갈림길의 시기로 표현하였다. 생산성이란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직업적으로 성공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창조적이고 삶을 살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을 말한다. 반면에 정체란 발달의 중단을 말한다. 사회적 격리와 자기 자신 만의 관심으로 마치 누에고치와 같이 갇힌 삶을 의미한다. 중년기의 정체는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년기의 또 다른 문제로 '빈 둥지 증후군'을 들 수 있다. 부모들의 나이가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되면 자녀들이 성장하여 학업, 군복무, 취업, 결혼 등으로 하나 둘 집을 떠나게 되고 텅 빈 집에는 부부만 남게 된다. 모든 것을 자녀들을 위해 희생한 부모에게 많은 공허감을 줄 수 있다.



중년이 되면 성적능력이 서서히 감소할 뿐만 아니라 회사 일에 대한 신경, 자녀들에 대한 걱정, 늙은 부모들에 대한 걱정 등으로 배우자에 대한 성적흥미가 감소하게 된다. 특히 젊은 시절에 비해 변화된 배우자의 모습 때문에 더욱 성 활동이 줄어들게 된다. 배우자의 신체적인 변화나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생기는 성기능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런 변화도 성적으로 자극적이라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 사랑과 따뜻함으로 이런 성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상대방의 신체적 기능적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은 이성을 찾을 경우 부부관계 파탄의 시초가 될 수 있다.

50세 전후가 되면 자신의 직업, 가정, 여가활동 등에서 어떻게 할지가 분명해 진다. 자신의 직업에서 충분한 성취를 얻은 사람들은 근거 없는 환상에 빠져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삼가게 된다. 이 시기에 자신의 인생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길을 찾으려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심한 우울증이 올 수 있다.

위의 K씨는 치료를 통해 좋아지기는 했지만 밤샘해서는 안 된다. 우울증은 만성적이며 재발의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고통이 심해 자살로 생을 끝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우울증이 일생동안 평균 4~5회 재발된다. 첫 치료 후 6개월 내에 25% 정도에서 재발되며, 5년 내의 재발률은 50~75%가 된다. 그러나 예방적 치료를 계속하면 재발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우울증은 치료가 잘 되는 병이다. 근래 좋은 우울증 치료약이 많이 개발되어서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자살 자해의 위험성이 있거나, 제대로 먹지 않고 자지 못할 때, 우울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때, 돌봐줄 가족이 없을 때에는 입원치료를 권유한다. 약물치료를 시작하여 효과가 나타날 때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치료 후 며칠 안에 효과가 없다고 미리 실망하여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되겠다. 먼저 수면이 나아지고 입맛이 돌아오며 피로감이 줄어들고 마지막에 가서 우울한 기분이 낳아지게 된다. 이런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데 보통 4~5주의 시간이 걸린다. 치료를 받는 동안 산책 등의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분 및 영양 섭취, 비타민 미네랄 섭취, 5~10분 정도 따뜻한 물에 전신목욕 등이 도움을 준다.

중년의 우울증은 의지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다. 따라서 의지력만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정신과 032-890-3880

우울증에 좋은 음식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행복한 영양소

아무리 편안한 마음을 갖고 싶어도 세로토닌이 나와 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진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체내에서 생산되는 훌륭한 우울증 치료제이다.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고 분비에 도움을 주는
우울증에 좋은 영양소와 식품 그리고 음식은 무엇일까?

Serotonin

임현숙 과장 | 영양과

우울증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세로토닌(serotonin)이라는 뇌신경세포 속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로토닌은 해가 뜨면 분비되어 사람에서 긴장을 풀어 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어 안정적으로 낮시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호르몬이다. 아무리 편안한 마음을 갖고 싶어도 세로토닌이 나와 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진다. 그러므로 세로토닌은 체내에서 생산되는 훌륭한 우울증 치료제이다. 따라서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고 분비에 도움을 주는 우울증에 좋은 영양소와 식품 그리고 음식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울증에 좋은 영양소 - 트립토판, 오메가-3 지방산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는 음식은 '트립토판(tryptophan)'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것들이다. 트립토판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하나이며, 체내에서는 합성할 수 없어 음식으로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아미노산으로



세로토닌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물질이다. 비타민 B₆과 비타민 C, 엽산, 마그네슘 등의 도움을 받아 세로토닌을 만든다. 트립토판이 많이 함유된 음식으로는 우유, 바나나, 두부, 땅콩, 계란, 살코기 등이 있다. 다가불포화지방산(Polyunsaturated Fatty Acid : PUFA)의 일종인 오메가-3 지방산은 머리를 좋게 하는 DHA EPA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꽂치, 참치 등의 생선 지방을 들 수 있다.

칼슘 부족하면 우울증 심해져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도 중요하다. 칼슘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심해진다는 보고도 있는데, 칼슘은 우유 등 유제품과 다시마, 미역, 파래 등의 해조류, 생선, 말린 새우, 조개, 콩, 두부 등에 많다. 마그네슘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며 현미, 콩, 아몬드, 오징어, 미역, 새우, 굴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 B₆과 엽산 등의 비타민도 중요한데 비타민 B₆은 바나나, 가금류, 해바라기씨, 시금치, 감자, 생선 등에 많으며, 엽산은 아스파라거스, 완두콩, 시금치, 땅콩, 브로콜리 등에 풍부하다.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

설탕, 과자, 초콜릿 등 당분이 많은 음식은 세로토닌의 분비를 감소시키므로 좋지 않다. 커피, 홍차, 콜라 등 카페인が多い 들어있는 음식도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할 수 있다. 하루 4잔 이상의 커피는 섭취하지 않는다. 1~2잔의 술은 괜찮지만 과음은 좋지 않은데 알코올의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우울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영양이 우울증 예방 및 발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평소 올바른 식습관을 통한 균형 잡힌 식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영양과 032-890-3260

양질의 단백질을 비타민, 무기질과 함께 섭취하는 닭 가슴살 녹말소스

▶ 재료(2인분)

닭 가슴살 4토막(400g), 소금 약간, 청대완두 2개, 당근 1/2개, 다식물 60cc, 간장 2작은술, 맛술 2작은술, 청주 1작은술, 녹말가루 1 1/2큰술

- ① 닭 가슴살은 힘줄을 제거하고 가볍게 소금을 뿌려 밀간을 해 둔다.
- ② 내열용기에 닭이 증기가 피어 오르는 찜통에 넣고 고기가 익을 때까지 15분 가량 찜다.
- ③ 청대완두는 줄기를 제거하고 어슷썰기하고, 당근은 채를 썬다.
- ④ 작은 냄비에 다식물과 간장, 맛술, 청주를 넣고 팔팔 끓인 다음 당근과 청대 완두를 넣고 살짝 끓인다.
- ⑤ 야채가 익으면 녹말가루를 물에 풀어 넣고 재빨리 저어서 걸쭉하게 만든다.
- ⑥ 가슴살을 먹기 좋게 찢어서 접시에 담고 ⑤의 걸쭉한 야채녹말소스를 끼얹는다.

Memo

닭 가슴살은 찢면 소화가 잘된다. 닭 가슴살에는 100g당 단백질이 약 24g이나 함유되어 있는 데 반해, 소화가 잘 안 되는 지질 함유량은 고작 0.5g으로 단백질과 지질의 균형이 매우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 찢서 야채와 함께 곁들여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한다.



겨울 저녁에 맛있는 속배추와 굴 샐러드

▶ 재료(4인분)

배추 400g, 굴 2개, 삶은 계란 1개, 파슬리(다진 것) 약간, @식초 2큰술, 소금 1/2작은술, 올리브유 4큰술

- ① 속배추는 이파리와 줄기로 나누어 이파리는 4cm 정도, 줄기는 5cm길이의 직사각형으로 썬다. 굴은 속껍질까지 깨끗이 벗긴다.
- ② 삶은 계란의 흰자는 다지고, 노른자는 체에 내린다.
- ③ ②와 ①을 버무려 그릇에 담고, ②와 파슬리 다진 것을 뿌린다.



끊이지 않는 최고의 노력으로 당일 진료! 당일 검사! 처방까지 한자리에서 시행

Digestive disease center

이돈행 교수 | 소화기내과 과장



소화기 내과와 내시경센터를 통합하여 진료 후 당일 에 검사를 한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소화기센터 확장 이전이 실행되었다. 이로써 본원의 소화기센터는 보다 발전되고 최고를 향한 노력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해본다.

■ _ 소화기관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여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으로 만들어 신체에 공급하고 여분의 양분을 저장하며, 소화되지 않은 음식과 노폐물 등을 배설하는 기능을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췌장과 같은 소화기관에서 담당한다. 이러한 소화기관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내과의 한 분과가 소화기내과이며, 질병과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될 장비를 갖추고 검사와 시술에 임하는 곳이 내시경센터다. 이 두 부서를 통합한 곳이 바로 소화기센터이다.

■ _ 내시경센터는 1996년 5월 개원하여 2007년 12월 현재 위 내시경 12만 명 이상, 대장 내시경 3만 명 이상, 담췌관계 내시경 5천 명 이상의 검사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수면 위, 대장 내시경만 3만례 정도의 검사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개원시 임상교수 4명, 간호사 2명, 의료기사 1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임상교수 8명, 전임의 4명, 간호사 11명, 간호보조 1

명, 의료기사 1명으로 소화기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췌담도 분야에서 현재 소화기내과 분과장인 이돈행 교수의 주도하에 소화기질환에 대한 새로운 약물전달 시스템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학회 활동으로는 현재 김영수 교수가 대한 내과학회 간행위원을 맡고 있다. 신용운 교수님은 소화기내시경 학회 및 소화기학회 평위원을, 또한 현재 본원의 기획실장 및 건강증진센터 소장직을 맡고 있다. 이돈행 교수님이 대한 췌담도 학회 보험이사, 식약청 중앙약사심의 위원회 소화기 전문위원, 대한생체재료학회 임상기획전문이사를 맡고 있다. 간호사들의 학회활동 또한 활발한데 문소영 간호사가 대한소화기내시경 간호연구회에서 인천지부장 및 감염분과위원장을, 김나리 간호사가 감염위원 및 경기인천지부내시경지회의 총무를 맡아 내시경 소독에 대한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내시경센터의 모든 간호사는 내시경 기기 세척 및 소독관리 워크샵 과정을 수료한 후에 소독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 _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6년 3대 사망원인은 악성 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었는데 이 중 암 사망 원인으로 는 위암과 간암이 가장 상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위암과 같은 소화관의 암은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기에 병변을 발견하지만 하면 완치도 가능하다. 위암의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 40세 이상의 성인남녀라면 누구나 2년에 한 번씩 무료 검진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내시경의 고통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경험해 본 후 검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피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의식화 진정 내시경 (일명 수면내시경)이 많이 선호되고 있다.

수면내시경은 검사 후 회복시까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며, 환자가 누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장암이 증가 추세라는 사실을 접한 많은 환자들이 위내시경을 시행함과 동시에 대장 내시경을 원하는데, 역시 검사실과 의료진의 증가가 필요하다. 검사를 한꺼번에 받은 후에는 종합적인 설명과 치료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진료실과 검사실의 통합이 합리적일 것이다. 상기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내원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소화기내과 외래와 내시경센터를 통합하여 소화기센터를 개소하는 한편 진료실과 검사실의 증설에 대한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금번 소화기센터 확장 이전이 실행되었다.

■ _ 소화기센터 확장 이전과 이에 관련된 특징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화기내과 외래와 내시경센터가 같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서 진료 후 당일에 검사를 곧바로, 한자리에서 시행할 수 있다. 물론 검사 처방 후 이에 따른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이리저리 부서를 찾아 다니는 불편함도 없어졌다.

둘째, 최신 장비가 도입되었다. 본원에 도입되는 장비는 국내 최초의 전자식 초음파 내시경 시스템으로서 기존의 기계식 내시경 시스템보다 해상력이 현저히 우수하고, 초음파 기기 역시 도플러가 가능해진 국내최초의 첨단 기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식도나 위, 십이지장을 통하여 흉부 종격동이나 복강내에 위치하는 각종 임파절이나 종양, 특히 췌장 내의 종양성 병변에 대한 조직검사가 가능한 신형 초음파 내시경으로서, 복부종양 질환과 폐질환의 조직진단과 병기 결정에 있어 또 한차원의 도약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외에 도입되는 확대 내시경 장비는 상하부 위장관 점막 및 혈관을 기존 장비보다 최대 100배까지 확대 관찰함으로써 점막의 형태와 혈관상 등 표면 미세구조의 정확한 관찰이 가능하다. 소장질환의 치료목적인 소장내시경 기기 또한 가장 최신형의 장비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도입되어, 소화기질환 치료의 최고 병원으로 도약하고 있다.

셋째, 소화기 내시경과 관련한 전문 간호사를 양성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내시경 교육담당 전문 간호사를 통해 내시경에 관한 시술과정과 합병증, 시술 전후 주의사항을 동영상과 상담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치료과정에 대한 알 권리와 참여의식을 높여 치료과정에 참여토록 하며, risk manager를 양성하여 주로 수면 내시경과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실수 없는 소화기센터를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넷째, 증가하고 있는 수면 내시경을 위해 넓고 편안한 회복실을 구상하였으며, 타 병원과 차별화되는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화사한 인테리어로 시설을 완비하였다.

이상은 여러 가지 장점은 인하대병원 소화기센터가 보다 발전되고 향상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최고를 향한 노력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 소화기센터 032-890-2540



인하대병원 최신형 1.5T MRI 가동

뛰어난 고해상도 영상,
음악과 영화 보며
촬영해



영상의학과에서는 최신 1.5T MRI(GE 사 SIGNA EXCITE HDx)의 정상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MRI검사는 질병의 조기진단 및 병변의 정확한 위치 확인 및 치료의 추적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또한 장시간의 검사시간이 필요하고 움직임이 있는 환자에서는 검사의 어려움이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 영상의학과에서는 최근 기존의 MRI 장비를 대폭 보완한 최신 장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GE 사 SIGNA EXCITE HDx) 이 장비의 우수성과 장점을 소개 하겠습니다.

임명관 교수 | 영상의학과 과장

m a g n e t i c r e s o n a n c e i m a g i n g

01 신규 MRI장비의 우수성 및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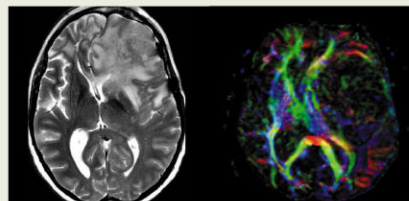
새로운 UP GRADE MRI 장비는 기존의 다른 1.5T MR장비 기종과 비교해 볼 때 하드웨어적으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장비에 사용이 불가능 하였던 소프트웨어들을 대폭 보완하여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표 기존 MRI와 새모델 MRI 용량비교

구분	기존 MRI	새 모델 MRI
CPU	512MHz	2.2GHz
HDD	18GB	250GB
Memory	1GB	4G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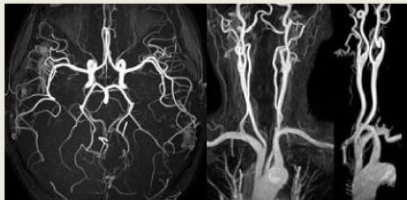
즉, 환자를 검사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처리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새 모델에서는 CPU, 하드디스크 및 메모리 용량 증가에 따라 데이터 처리 속도와 영상 저장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으며, 영상의 스캔과 획득, 그리고 영상 재구성 등이 동시에 행하여짐으로써 검사시간의 단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표 참조).

02 뇌신경계 질환 검사의 우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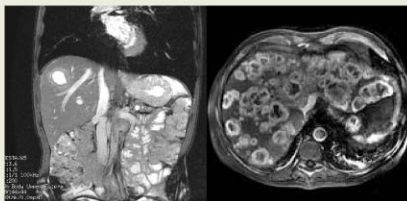
최신 MR장비는 뇌기능검사를 통한 3차원 기법으로 얻은 해부학적 영상에 뇌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영상 및 뇌신경섬유의 진행경로를 융합하여 뇌신경 수술을 위한 준비 작업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뇌 혈류량검사, 확산자기공명영상, 자기공명분광이 기존 MR장비보다 신속, 정확해지며 폐쇄공포증 환자에게 검사도중 음악과 영화를 통해서 편안하게 검사가 가능한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03 MR 혈관조영술의 신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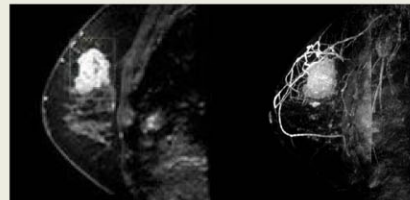
기존 조영제를 주입하는 혈관 검사시 기존의 경우는 촬영속도가 빠르지 않아 혈관의 문제를 제대로 검사하지 못해서 진단의 착오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TRICKS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고식적인 혈관조영술(Angiography)과 거의 비슷한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04 MR 복부촬영의 편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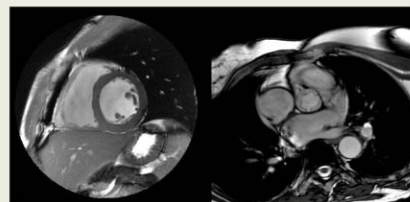
복부 검사시 호흡에 의한 Artifact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자의 숨을 참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가 숨을 제대로 참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번 촬영을 하게 되어 검사시간이 길어지거나 검사를 하기 힘든 상황이 생겼으나 새로운 LAVA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검사에 비해 25%의 촬영속도가 빨라지고 25%의 검사부위가 넓어지며 25%의 영상의 질이 개선되어 검사를 쉽게 할 수 있으며 복부질환 환자의 경우 검사에 탁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05 MR 유방촬영의 3차원 진단



여성 환자의 MR 유방촬영 검사시 Vibrant 기술을 적용하여 동시에 양쪽 유방을 3D로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방의 경우 지방이 많아 단순유방촬영술만으로 진단하는 것을 FAT Saturation(지방억제) 기법을 활용하여 병변의 3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고속기법을 통하여 예전의 촬영보다 10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06 MR 심장촬영의 탁월성



기존의 검사에서는 심장의 움직임에 의한 Artifact때문에 심장 검사시 영상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으나 MR Echo를 사용하게 되면 Real time Ultra Fast FIESTA를 이용하여 Whole cover cardiac 검사를 Gating 및 breath-hold없이 실시간으로 심장검사가 가능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 각도에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부위를 바로 검사할 수 있게 되어 심장검사에 탁월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IGNA EXCITE HDx 1.5T MRI는 기존의 MRI 장비보다 해상도와 영상의 정밀도가 훨씬 향상된 최첨단의 기능들을 장착함으로써 기존에 사용되지 못하였던 다양한 영상기법이 적용되었고 또한 검사시간을 현저하게 줄임으로써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032-890-2740

Let's Go

I N H A University H o s p i t a l !

‘아픈 고객’을 위한 배려는

불꽃같은 마케팅 수단!

김정희 부장 | 원무보합팀

또 한 해를 떠나 보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른다는 세상살이에서 일 초의 건너뛴도 용서치 않으며 또박또박 품고 온 365일 발자국의 무게.. 진정 흐르는 세월을 어느 강자가 붙들 수 있겠습니까?

새해에는 어떤 화두를 가지고 ‘가치와 경쟁’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업의 가장 큰 목표는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경쟁력은 바꿔 말하면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 차별화이지요. 품질을 높이고 고객의 가치를 높이면 기업 활동에서 언제나 개선, 개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고객가치경영은 철저한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축적하고 Comment, Complaint, Compliment로 구분,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고객만족경영 차원을 넘어 고객가치 경영을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07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조사’ 2007년 전략보고서)

병원마케팅은 ‘즐거운 고객’이 아닌 ‘아픈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들이 느끼는 의료서비스의 가치와 만족은 기업보다 더 많은 배려를 병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아픈 고객이 병원에 왔을 때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그들을 <불만의 전파자>로 만든다면 마케팅은 마이너리그로 추락하고 만다는 점입니다.





니다. 의료계도 무한경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의료원처럼 대형병원도 아닌 인하대병원이 어떻게 하면 너도나도 다 힘들다 하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존재 가치를 확립할 수 있을지 우리는 많은 고민과 연구, 조사를 하였고 마침내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동북아 시대를 여는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과 <대한항공>이라는 동반자 그리고 우리병원의 천하무적 CS를 무기로 세계를 향해 외치기로 한 것 입니다.

“인하대병원으로 오십시오, 여러분을 VIP로 모시겠습니다.”

해외환자 유치추진 현황 및 정부정책 등의 동향파악

국제병원연맹(IHF) 총회 참석차 지난 해 말 방한한 루준웅 싱가포르 래플즈병원 원장은 최근 “자국의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부유층들이 치료와 여행을 겸해 외국으로 떠나는 ‘메디컬투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의료 허브가 되려면 병원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한국의 골퍼들이 외국으로 왜 나가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9.11테러 이후로 미국으로 가려던 중동아시아 지역 환자들이 입국의 불편함 때문에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런 호기를 잘 살려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 주변 경쟁국들은 아시아의 ‘의료 허브’를 목표로 해외 환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선 의료기관, 여행사 등이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과 범 부처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높은 의료 수준과 가격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환자 유치 실적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적극적인 해외 홍보 활동을 통해 우리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제 인지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외국인 환자를 위한 진료 편의 시설 확충, 전문 인력 확보 등의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의료 광고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개, 알선을 허용해 알선 기관, 여행사가 의료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2006년 정부정책발표에서 의료분야와 관련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육성과 시장개방에 대해 언급했으며 정부는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에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이면서 구체적인 지원을 시

* table 1. 인하대병원의 해외환자유치의 발자취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3월, LA지역 기지단 초청 체험검진 행사 11월, 해외검진 활성화를 위한 컨진센터 홈페이지 다국어 구축 11월, 중국, 홍콩지역 해외동포건강검진 유치 홍보(대한항공 홍콩지점 공동진행) 12월, 대한항공 홈페이지(전 지역대상) 해외동포건강검진 이벤트 홍보	4월, 제1차 LA현지 건강검진설명회(대한항공 공동진행)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의료관광세미나 참석 5월, 한인축제(LA힐리웃불행사) 건강검진권 협찬 10월, 제5회 세계한상대회참가-부산(세계한민족경제인모임에서 해외동포건강검진홍보)	3월, 한국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발족 및 회장기관으로 선출 5월, 제1차 LA현지 건강검진설명회, 한인축제(LA힐리웃불행사) 9월, 미주지역 의료체험검진 실시(미국, 캐나다의료관광 관계자) 10월, 세계한상대회(6차) 부산·미주지역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3건 11월, 세계의료관광세미나참석-필리핀의료관광에이전트 미팅을 위한 세미나참석	해외환자유치에 앞장서는 인하대병원

작했으며 해외 환자 유치 활동의 중심점이 될 민관 공동협의체(한국 국제의료 서비스협의회)를 구성하고, 홍보 관련 예산도 확보해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등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하대병원에는 이미 2004년부터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구성을 완비하고 미주지역 특히 LA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해외동포 건강검진>이라는 타이틀로 시작된 해외유치활동은 최첨단의료기기와 세계적 수준의 의료진, VIP플러스센터 개설, 전담코디네이터제도, 평생주치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고객만족과 차별화에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어느 병원에서도 이루지 못한 성과이며, 해외환자유치라는 불모지 개척의 선구자입니다. 지난 3년간 준비하고 추진해온 해외검진 유치 노력에 대한 발자취와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table 1. 2. 3. 4. 참조

앞으로의 정부정책동향

해외환자유치 40만 명을 목표(2015년)로 2007년 3월 민관공동협의체인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를 발족시켰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사무국으로 활성화 진행 중입니다. 현지 설명회, 체험의료행사, 전문코디네이터 양성, 해외의료인력 연수지원, 의료법 개정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지원사업 전개 중이며, 중앙부처를 표방한 지방자치제의 해외환자유치사업을 집중화 및 사업활성의 효율 달성을 위하여 민관공동협의체를 법인화 진행, 국가적 신뢰도 향상을 위한 JCI세미나도 개최하여 병원계의 관심을 유발, 유도하고 있으며 지자체 업무 연계를 위하여 4개 지역(서울, 부산, 제주, 인천)을 의료테마 지역으로 선정하는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맺으면서

인하대병원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노력과 배경,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진 결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마케팅분야에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 콜 센터 구축을 통한 고객관리
- 삼성생명 365 홈케어와 건강관리 협력 체계 구축으로 VIP 관리 시스템 정착
- 건강검진부분 국제표준화 획득 (ISO9001)
- 항공사와의 업무 제휴
- 한 단계 높은 플러스 센터 운영 시스템 구축
- 사이버 나이프 도입에 따른 마케팅
- 영종도 메디컬 센터 홍보(마케팅) 시스템 구축

그러나 병원이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진행하더라도 꼭 잊지 말고 지켜야 할 신념과 가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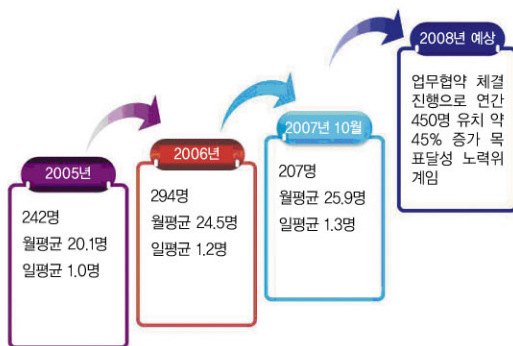
◎ 첫째 “고객을 위한 배려”입니다.

고객만족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수단은 없습니다.

만족한 고객 한 명의 중요성은 여러 책이나 강의 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다른 업종과는 달리 '입 소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료



* table 2. 플러스센터의 해외검진 추진실적



INFR A . .

WORLD MARKETING

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병원의 브랜드 이미지가 전승되고 구축되고 있습니다.

CS는 병원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함께 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 둘째 '창의적인 변화'입니다.

기업이 원가를 줄이고 품질을 높이고 고객의 가치를 높이면 개선, 개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두바이의 셰이크 모하메드도 새로운 발상으로 오늘날 두바이를 창조했고, 빌 게이츠도 꿈과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습니다. 비단 외국의 사례가 아니라 꿈을 잃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창조성을 만들어 낸 사례가 경영계뿐 아니라 스포츠나 연예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피겨 요정 김연아, 세계적인 공연이 된 난타, 그룹 비보이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남이 상상하지 못했고 가지 않았던 길을 두박두박 자신 있게 걸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인정받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병원들보다 먼저 해외건강검진을 유치하고 마케팅활동을 시작했습니다.

KTX 등 교통수단의 발달은 고객을 더 이상 한 지역으로만 고집하지 않게 합니다. 전국 2시간 생활권은 바로 병원입장으로서는 위기이자 기회인 것입니다.

해외 환자들에게 어떤 브랜드를 가진 병원으로 남게 될 것인가는 이제부터 우리의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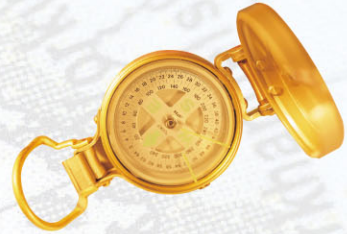
성냥불을 켤 때 살살 갖다 대기만 한다고 불이 켜지지 않듯이, 힘을 주어 딱 그어야만 불이 붙듯이, 수행(修行)의 과정도 그러합니다. 법륜스님의 [금강경(金剛經) 이야기]에 나오는 글이지요. 모든 일에 대충 대충해서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집중하여 눈에 불을 켜고 바짝 달라붙어야 이룰 수 있지요.

성냥불을 딱 그어야 불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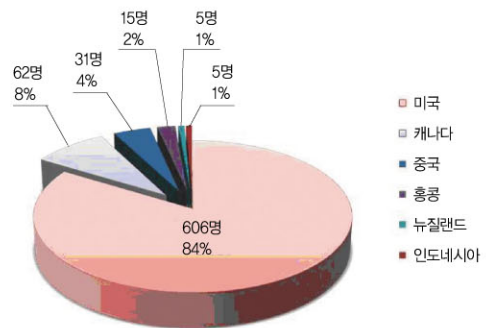
탁월한 Target Marketing과 창조적인 경영전략 및 목표를 싣고 이제 2008년 향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하여 병원 교직원 여러분들의 열정(熱情)을 함께 싣고 말입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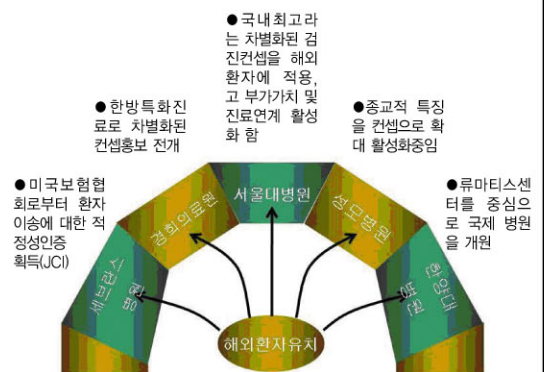
Let's go INHA University Hospital!



* table 3. 플러스센터 해외건강검진적 국가별 현황
(2005~2007 통합)



* table 4. 타 병원의 해외환자유치 동향





태안의료봉사 사전답사기

두어 삽 파면 또 검은 기름, 복구해야 한다는 염원 뿐!

김종민 주임 | 대외협력팀

날씨는 춥고 바람까지 매서운 12월 13일. 태안군 보건의로 원장님으로부터 현지 의료상황을 보고 받고, 의료관련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며 인하대병원에서 진료를 해줬으면 하는 지역을 답사하기 시작했다.

충남 태안군 통개항에 도착했다. 아름다운 해변과 갯벌, 갯벌 한 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 차안에서 바라본 풍경은 너무 아름답다. 그것도 잠시, 차에서 내리는 순간 매서운 바닷바람이 온 몸을 움츠리게 하고, 역한 원유냄새로 아름다운 풍경은 한순간 사라졌다.

10분을 다시 시골 길을 따라 달려오니 '아치내' 라는 곳에 왔다. 작은 갯바위는 온통 검은 원유로 범벅되었고, 원유냄새는 머리를 쥐어짜는 듯 아파왔다. 지금까지 의료진의 손길은 없었고, 주민들의 고생은 심하다고 하소연이다. 차로 15분 돌아나와 파도리 입구에 도착했다. 대형버스 10대 정도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봐서 여기는 사람이 많을 것임을 짐작하며 바닷가로 가보니, 식사 준비와, 간식, 따뜻한 커피 한 잔 할 수 있도록 태안군 여성자원봉사단이 수고하시고 계셨다. '엄청나게 역하다'는 표현 밖에 할 수 없는 냄새와 까만 갯바위에 흰색 방제복을 입은 자원봉사자들의 기름제거 작업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해양경찰에서 임시로 빌린 난방이 되지 않는 컨테이너에 태안군 보건의로원에서 파견된 의사와 간호사가 해양경찰과 함께 밖의 엄청난 바람과 추위로 환기라는 사치는 생각도 못하는 상태에서 약간의 구급약으로 주민과 자원봉사자를 위해 고생하고 있었다. 1,000여 명이 작업을 하고 있으며, 두통과 몸살, 근육통, 나이 많으신 주민들의 관절염, 안과질환, 피부질환 등등 간략한 현지 의료상황이 파악되었다. 자리를 옮겨 모항항으로 갔다. 항구는 원유저장탱크였음을 증명하

라도 하듯 검은 피를 치고 있고, 항구 옆 갯바위 쪽은 전쟁터를 연상케 하는 군인들의 천막이 2열 횡대로 설치돼 있고, 자원봉사자와 군인들이 까만 갯바위를 하얗게 덮어가며 원유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제야 이 역한 원유의 냄새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메아리이며, 어떻게 해서든 복구해야 한다는 염원 뿐, 어떠한 다른 이유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검은 갯바위와 항구를 뒤로 하고 만리포로 향했으나, 역시 여기

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백사장 위에 원유만이라도 걷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었고, 해안가 도로는 제거한 원유를 담아 나르기 위한 커다란 PVC통이 셀 수 없이 서 있었다.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고생하고 있고, 구호물품을 분배하는 집결지는 대형 물류 센터였다. 하루 1만 명 이상, 연인원 약 6만 명이상이 매달려 원유를 제거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라는 만리포 이장님의 설명에 숙연해 질 수 밖... 모래사장을 두어 삽 파면 검은 원유 기름 층이 드러나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만리포 이장님의 걱정은 백사장 풍경의 답답함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 했다.



따뜻한 말과 친절, 보람

태안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리라



정재호 전공의 | 정형외과 1년차

나는 인하의료사회봉사단의 일원으로써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태안 파도리와 모항, 만리포에서 펼쳐지는 의료봉사 기간 중 17일부터 5일간 참여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출발한 봉사단은 의사4명, 약사1명, 간호사5명, 행정지원 5명 등 15명이 한 팀을 이뤄 교대로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방송에서 보던 유류현장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받고 있던 지역주민, 방제작업에 참가한 자원 봉사자들에게 진료를 할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섰다. 진료캠프를 파도리 방제작업장 근처에 마련하였다. 우선 처방 가능한 약들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다행히 대부분의 약들이 응급실과 병동 환자들에게 자주 처방하는 약들이었고 같이 파견 나온 내과, 피부과, 약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처방에 대한 논의를 끝냈다. 파도리 도착 당시부터 이미 진료캠프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진료를 시작하였고 우리는 약 2시간 만에 수십 명의 환자를 보았다. 대부분이 어지러움증, 근육통, 감기증세를 호소하는 분들이었고, 간혹 작업 중에 다쳐서오는 외상 환자들이 있었다. 파도리에서의 진료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다시 3 팀으로 나뉘어 저 모항과 만리포로 환자들을 찾아 나섰다. 나는 모항으로 가는 팀에 합류하였는데 모항에 도착하여 진료 캠프를 설치하자 그곳에서도 어지러움증과 감기증세를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었다. 정신없이 진료를 보다보니 어느덧 자원 봉사자들, 지역주민들도 작업을 끝내고 철수 하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파도리 진료 캠프에 모여 그날의 진료를 정리하였다. 5일간 계속해서 3팀으로 나뉘서 파도리, 모항, 만리포에서 진료를 하였고 매번 많은 사람들이 진료 캠프로 몰려들어 어떤 날은 모자란 약을 가지러 다시 파도리 진료 캠프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

5일간의 의료 봉사 마지막 날 파도리 해안을 둘러 보았다. 기름 유출 사고로 오염되었던 해변은 뉴스와 기사에서 보았던 것 보다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모래와 바위를 수작업으로 닦아내고 고인 기름을 흡착지로 빨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고 조금씩 해변은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물론 이들이 하는 방제작업으로 수일 내에 바다가 예전처럼 쉽게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태안반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

간이 진료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진료에는 한계가 있었다. 단지 우리는 그들이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대중적인 치료를 했을 뿐이었다. 일시적으로 증상이 좋아 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태안에서의 의료봉사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처방하였던 약이 아니었을 것이다. 의료봉사단 전원이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건넬던 따뜻한 말들과 친절이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태안 의료 봉사지원이 피해지역 주민들과 자원 봉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인천으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내 마음속에 있던 유류현장에 대한 무관심이 보람과 태안에 대한 따뜻한 추억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헌혈... 37도 따뜻한 사랑 나누기

채혈실이 헌혈의 집만큼 문턱이 낮아지길

이건희 대리 | 기획홍보팀



고3 여름 방학 때 어머님께서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병원에서 수혈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혈하는 대상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좋다는 말에 한창 공부할 시기지만 같은 반 급우들이 팔을 걷어 붙였다. 급우들이 선뜻 나서준 덕분에 수술하는데 필요한 양을 구할 수 있었으나 도움을 준 급우 중에는 집에 가서 부모님께 꾸중을 들었다는 친구들도 있었다. 헌혈하면 자식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걱정 때문이었다. 그래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받은 만큼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나의 첫 번째 헌혈이다.

그 후 가끔씩 ‘피가 모자란다’는 뉴스를 접하거나 주위에 헌혈증이 필요하다는 분이 계시면 헌혈을 하곤 했고, 2003년에 1992년부터 시작한 헌혈이 30회가 되어 적십자에서 주는 은장을 받게 되었다. 은장을 받을 땐 약간 우쭐한 마음이었으나 50회 이상 하셔서 금장을 받는 리스트에 여성분들 이름이 많은 걸 보게 되었다.

헌혈하다 보면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찔러 나온 피를 검사용액에 넣어 보는 테스트가 있다. 난 한 번도 테스트에서 거부당한 적이 없지만 보통 여성분들은 그 테스트에서 많이들 “다음에 도와주세요”라는 말은 듣곤 한다. 몸 상태가 당일 헌혈할 상태가 아니란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도 꽤 열심히 헌혈을 한다는 사실에, 우쭐한 마음이 순간 부끄러움이 되었다.

예전에는 대학가 근처에 집이 있어서 주로 헌혈의 집을 많

이 이용한 편이었다. 병원 입사 이후엔 주로 병원 채혈실에서 헌혈을 하면서, 주위 분들에게 식후 헌혈에 동참하기를 권유한지 몇 년.. 이제는 자발적으로 헌혈실에서의 오수를 즐기러 가는 상태가 되었다. 하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병원 채혈실이 헌혈의 집만큼 문턱이 낮아졌으면 한다. 그동안 헌혈하면서 받은 기념품들도 꽤 많이 되는 것 같다. 공중전화 카드, 우산, 지하철 정액권, 문화상품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값진 것은 아직은 내가 건강에 문제가 없어 누군가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쁨이다.

지난해 11월에 헌혈한 지 14년 만에 50회 이상 헌혈로 금장을 받았고, 올 연말이면 아마 60회에 다다를 것이다. 나의 목표는 우선 100회로 잡았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100회 이후에는 200회가 되지 않을까?

헌혈만큼 남을 위해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나 싶다. 전혈의 경우 침대위에서 순간 따끔함을 참고 20분정도만 할애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2달 후면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방학이 되면 헌혈하는 학생들 수가 감소해 “피가 많이 모자란다”고 한다고 한다. 내가 한 헌혈로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 마음은 있는데 바빠서 그동안 못하신 분들은 이번 참에 소매를 같이 걷어 올려 보심이 어떠실는지.

조혈모세포이식과 기증

배우 최강희도 우리병원 문변영 선생님도 한 생명에게 내일을 주었습니다!

이남금 임상병리사 | 진단검사의학과



조혈모세포는 우리 몸 안의 골수나 백혈구조혈성장인자(G-CSF) 투여 후 말초혈액에 존재하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을 생산해내는 세포입니다.

과거에는 조혈모세포를 골수에서 주로 얻었으나 최근엔 말초혈액이나 제대혈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조혈모세포만을 채집하는 것입니다. 조혈모세포 채취 시 소요되는 시간은 2~3시간이며 약 250ml를 채혈합니다. 이는 일반 골수채취시의 조혈모세포 수량보다 약 10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백혈병과 같은 혈액종양이나 세포 분화 과정에서 이상이 생긴 경우나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공여자에 따라 <자가조혈모세포이식>과 <동종조혈모세포이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은 환자 자신의 골수 혹은 말초혈액의 조혈모세포를 채취하여 새로운 자가면역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이고,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즉 혈연간이나 타인 간에서 조직적합성항원(HLA)이 맞는 공여자를 찾아 조혈모세포를 공여 받는 방법입니다.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건강한 공여자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함으로써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의 단점인 종양세포의 오염을 배제시킬 수 있고 환자의 잔여 백혈병세포를 면역학적 기전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진단검사의학과 문변영 선생님은 조혈모세포를 말초혈액에서 채취, 기증하여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에게 이식될 예정입니다.

문 선생님은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해서 몇 주간 술과 담배는 멀리하고,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어 좀 더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려고 노력했다고 동료들이 전합니다.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은 소아의 가장 흔한 악성종양이며 HLA일치 혈연간 조혈모세포이식의 무병 생존율은 70~80%이상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HLA형은 형제자매간에 서로 일치할 확률이 25%정도(부모와는 5%이내) 되지만 현대사회는 핵가족화와 저출산 등으로 가족 간에 같은 HLA형을 찾을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환자들은 타인으로부터 환자와 같은 HLA형을 구하려 하지만 비혈연자간에 HLA형이 일치할 확률은 수천~수만 명 중에서 겨우 1명 정도가 발견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를 모집하여 그들의 HLA형을 검사하여 두었다가 같은 형의 환자가 나타날 경우에 즉시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채취하여 환자에게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신청은 18세~4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분이면 가능하며, 실제기증은 55세까지입니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한 생명에게 내일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이식조정기관 문의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문의 : 02-737-5533

* 카톨릭조혈모세포은행 ☎문의 : 02-590-1149

T h a n k s

S o

M u c h

아름다운 인연이 전하는 감사의 말

친애하는 석현숙님께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한 달 전 연로한 부모님과 인하대병원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YUEON ANDRISK NS*입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그쪽 병원에서 치료받을 동안 친절히 도와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중국 광조우로 돌아온 후,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저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의진과 당신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광조우의 병원에서 3주 정도 지내셨고, 지금은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이제야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저희의 양부모 댁에는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YUEON ANDRISK NS

2007. 12. 10

吳 裕 安



*가족들과 시카고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중국 광조우로 가던 페이티안 씨(83세)는 인천공항에서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인천공항의료센터를 거쳐 본원 응급의료센터로 11월 7일 오전 10시경 내원하셨습니다.

원무보힘팀 석현숙 주임은 내원시각부터 익일 새벽 5시 퇴원하실 때까지, 진료시에 중국어 통역과 가족의 요청으로 직접 중국 영사관에 연락하여 환자상태를 전달하였고, 본인 휴대폰으로 중국의 가족들과 전화 연결을 해주는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환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카드는 페이티안 씨의 아들이 석현숙 주임과 의료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보낸 것입니다.

Q Question _ Answer _ A



Q 이갈이 때문에 마우스피스를 껴더니 입이 안 벌어지고, 우울증, 불면증이 생겼어요.

고등학교 3학년부터 잠잘 때 이를 갈기 시작했어요. 요즘 이를 자주 갈아서 시중에서 파는 마우스피스(권투선수용)를 사서 잠잘 때 끼었어요. 이가 너무 아팠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 얼굴 앞면이 거의 마비상태입니다. 지금 제 턱이 통증은 없는데 상당히 불편 합니다. 우울증 증세도 있는 것 같고, 태어나서 처음 불면증이라는 병도 얻게 되었습니다.

A 교정치료가 필요하며, 턱관절 질환으로 인해 우울증이 나 불면증도 발생 가능합니다.

말씀하시는 증상은 턱관절 질환으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갈이와 치열이 고르지 않고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턱관절 질환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면증도 발생 가능하며, 환자분 상태에 맞지 않는 마우스피스와 같은 장치 사용은 오히려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턱관절 질환을 유발하는 이상 습관 개선,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교합안정장치 치료, 수술적 치료 등이 있으나 부정교합이 원인이라면 교정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치료비는 치료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와 방사선 촬영을 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치과 ☎032-890-2470

Q 정신분열증도 유전이 되나요?

아내는 정신분열증을 어릴 때부터 앓았고 저희가 아기를 가져야 할 지에 대해 고민입니다. 약 복용으로 인해 지금껏 피임을 했었는데, 저희가 아이를 낳는다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지요? 유전이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을까요? 아이를 낳다면 모유를 수유해도 될까요?

A 약간의 소질을 타고 날 수는 있으나, 소질만으로 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분열병은 직접 유전되는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병의 소질이 다소 유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을 경우 걸릴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이 약간의 소질을 타고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소질만으로 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생각하셨다면 우선 담당의와 상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물유지여부, 증상의 악화의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담당의, 보호자, 환자가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유수유는 약물에 따라 유즙으로 약물이 분비될 수 있는 약들이 있으므로 대체로 약을 복용하며 모유수유는 하지 않는 것이 보

통입니다. 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정신과 ☎032-890-3880

Q 인하대병원에서 파킨슨 약을 먹고 진전이 있다고 하던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2년 전부터 보행장애가 있으셔서 그간에 다니던 병원에서 약을 드시고 계신데 별 진전이 없습니다. 시골 동네 어느 분이 인하대병원에서 파킨슨 약을 먹고 보행도 자연스럽다고 하시길래 그곳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입원을 해야 하나요?

A 파킨슨씨 병의 치료는 완치 목적이 아닌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파킨슨씨 병은 퇴행성 질환이므로 완치를 위한 치료가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강하게 약을 사용을 하면 호전되었다고 느낄 수 있으나 나중에는 약을 쓰는데 아주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하충근 교수님께서 파킨슨씨 병을 전문으로 진료를 하십니다.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외래 진료를 받으시고,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 자료(뇌 사진 및 혈액 검사 등) 및 해당 병원의 조건서를 모두 가져오시는 것이 진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입원 여부는 외래 진료를 받으시고, 교수님과 상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경과 ☎032-890-3860

Q 요잠혈은 어느 진료과로 가야 하나요?

소변검사를 했는데 소변검사결과 요잠혈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요잠혈 유소견이어서 상복부초음파검사도 받았고 이상소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변검사에서는 유소견으로 나왔습니다. 검사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지, 요잠혈에 대한 해당 진료과는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A 지속적 혈뇨 검출 시에는 신장내과 또는 비뇨기과를 방문

성인에게서 혈뇨가 검출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결석 등 비뇨기과적 질환에서 사구체 신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을 생각할 수 있으며, 특별한 질병이 없는 단순 혈뇨일 수도 있습니다. 혈뇨의 1차 검사는 시험지 방법으로 표준화 되어있어 병원마다 거의 동일하게 검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혈뇨(요잠혈)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신장내과나 비뇨기과를 방문하셔서 원인 질환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장내과 ☎032-890-2229, 비뇨기과 ☎032-890-2360

약 물 Q & A

인슐린 주사에 관한 상식들 차가운 상태로 주사하면 통증 유발해요



1

인슐린 종류가 다양한데 어떻게 다른가요?

인슐린은 발현시간, 지속시간에 따라 속효성, 중간형, 지속형 인슐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간형 인슐린(휴물린 엔, 노보렛 엔)과 지속형 인슐린(란투스)은 지속적인 혈당강하에 쓰이며, 속효성 인슐린(휴물린 알)은 빠른 혈당강하에 쓰입니다. 최근에는 빠른 약효발현과 오랜 지속을 위해 속효성과 중간형을 일정한 비율로 섞은 혼합형 인슐린(휴물린 70/30)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식후 혈당조절을 위해 10여분 정도의 작용발현시간을 갖는 초속효성 인슐린(휴마로그)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류에 따라 주사를 투여하는 시간이나 빈도가 결정되므로 인슐린을 정확하게 투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사용하는 인슐린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인슐린 주사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봉하지 않은 병 또는 펜 형의 인슐린은 냉장보관 시 제품에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약효가 유효합니다. 사용 중인 인슐린은 실온이나 냉장보관 하는데, 보통 개봉 후 1달 안에 사용해야 하므로 병이나 펜에 인슐린 개봉날짜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슐린을 냉장보관 할 경우 냉장고의 야채보관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 중인 인슐린을 실온에서 보관할 경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사용하기 전 인슐린의 형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으며 특히 속효성 인슐린은 맑은 물과 같은 형태이므로 혼탁해 보이거나 이물질이 있으면 변질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주사부위의 피부손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냉장 보관한 인슐린을 바로 차가운 상태로 주사하게 되면 지방변성이 일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중인 인슐린은 상온에 보관하거나 손바닥 안에서 굴려주어 체온에 가깝게 데운 상태로 맞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같은 부위에 반복 주사 시에도 지방변성으로 인해 발적, 경련,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으며 축적된 지방이 인슐린 흡수를 저하, 지연시키기 때문에 혈당 변화 폭이 커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주사 놓은 부위에는 한달 이내에 다시 놓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일정하게 순서를 정해 2~3cm간격을 두어 주사해야 합니다. 복부는 흡수율이 빠르고 피하지방이 발달되어 있어 주사부위로 가장 좋는데 배꼽주위 5cm는 혈관분포가 많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 합니다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3327 | 야간 032) 890-3315



우리가족의 주치의 365 홈케어 최적의 진료 지원하는 종합적인 건강 솔루션

- **몸 하나 추스리기 힘들 정도로 바쁜 하루...**
가끔 피곤하고 몸이 이상해도 '나중에 병원 한번 가지', '설마 내가 뭐 이상한 병이 있겠어!' 하고 그냥 넘겨버리실 겁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도 그 결과에 대해 대체로 괜찮다고 믿고 계시기도 하겠지요. 나쁜 생활습관과 환경에서 오는 중대한 병은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아프지 않아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요소에 대해 중요한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중요한 가치이자행복인 나의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여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지 못하면 누군가 내 건강을 철저히 관리해 줄 사람이나 시스템이 있으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 **〈365 홈케어〉**는 2000년 국내 최초 온,오프 라인을 통해 생활 속 건강의 궁금증을 상담함으로써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한 우리가족 건강수준 향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의 및 자문의, 한방, 상담전문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로 구성된 주치의 팀을 그 핵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65 홈케어〉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기 전 생활 속 건강관리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철저한 예방관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며 또한 질병발생 후에도 효율적이고 최적의 진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건강증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65 홈케어〉는 현재 전국 30만 회원에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200만 국민이 서비스를 경험하였습니다.
-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강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24시간 인터넷 상담, 전화상담, 병원진료예약대행, 종합건강검진예약대행, 정기적으로 의료진이 고객님의 건강을 체크하는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정보 및 건강예방정보, 건강월간지를 매월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진료과별 전문의의 최신칼럼을 바탕으로 구성된 웹진, 건강문자서비스(SM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건강 정보제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고객에 맞는 건강검진항목을 설계해 드리고 있으며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최적의 병원과 전문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간호사 동행을 통해 병원이용과 치료과정의 편의와 이해를 도모하는 등 〈가족주치의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번 인하대병원과의 업무제휴는 국내 최초로 인하대병원의 건강검진 VIP고객은 365홈케어의 (질병관리시스템)과 인하대병원의 〈VIP 진료연계 시스템〉을 일원화한 〈우리가족 365일 건강관리시스템〉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하대병원 고객을 위한 〈365일 건강관리시스템〉을 권해 드리며 귀하의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www.365homecare.com





아기들 세상...

인하대병원 직원들의 아기입니다.
어때요?
세상의 무엇보다 예쁘죠.

눈짓 하나에,
옹알이 하나에,
큰 행복을 듬뿍 주는
세상의 아름다운 천사들이기에
세상은 참으로 기쁨이 충만하지도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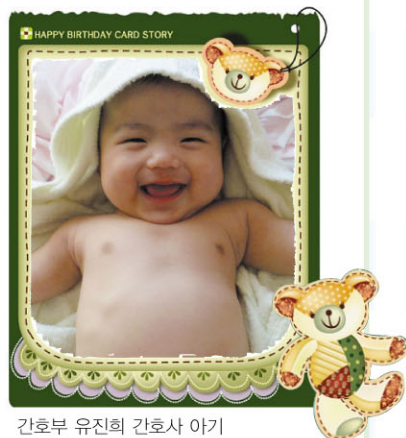
인하대병원이란 틀 속에서 같은 직장인으로 만나
서로의 얹히고 설킨 고단한 생활 속에서 우리 직원들의
본 모습은 잊고, 잠깐씩 스치는
직장인으로서의 모습만 보아왔는데...

이렇듯 예쁜 아기들의 모습 속에 숨겨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미지가
참으로 신기하고 새삼스레 귀하게만 보입니다.

운동 햇살 가득한 날!
인하가족 아기들의 옹알대는 웃음이
마음 깊숙이 품어드는 행복 가득한 날입니다.



서9병동 한선영 간호사 아기



간호부 유진희 간호사 아기



간호부 이보영 간호사 아기



분만실 김민경 간호사 아기



노사협력팀 이우진 주임 쌍둥이



서15병동 정경애 간호사 아기



동17병동 임정원 간호사 아기



동17병동 천송희 간호사 아기



영종메디컬센터 건립 협약 체결



영종메디컬센터 컨소시엄(인하학원 이사장 조양호)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재희)가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에 글로벌 메디컬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1월 10일 체결하였다. 인천공항 글로벌메디컬 센터는 우선 인천공항 1단계 국제업무지역(인천시 중구 운서동 소재) 내 6,146㎡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올해 착공해 2011년 개원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경쟁우위 분야인 성형, 외과수술, 건강검진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메디컬센터는 인하대병원과 한진그룹이 공동투자 하여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공항과 연계해 전략적 마케팅 활동을 통해 동북아 역내에 존재하는 의료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 동안 과학적인 근거 기반 간호수행을 위해 시행한 8편의 임상 간호 연구논문과 모범 간호사례 19편이 발표되었다. 대상은 동8병동의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이 환자의 지식 및 행위에 미치는 효과'로 선정되었으며 작년부터 제정된 인하나이팅게일 상은 동12병동 김옥금, 서8병동 박경희, 이비인후과 외래 이일민, 회복실 강윤경, 7병동 장미영 간호사가 수상하였다.

2008년 새해 첫 아기와 2008번째 외래환자 이벤트



인하대병원 새해 첫 아기의 주인공 이은주님(인천 동구 송림6동)님은 1월 1일 남아를 출생하였다. 병원 측에서는 축하의 선물로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하였다.

새해 첫 진료일인 1월 2일, 2008번째로 병원을 찾은 나호일 님(51세, 인천 중구 해안동1가)께도 건강검진권의 행운이 돌아갔다.

현관 회전문 교체공사



새해를 맞아 병원도 환해진 현관으로 새단장을 마쳤다. 지난 12월 10일부터 가림막설치를 시작으로 통행빈도가 적은 소형회전문

을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대형 자동 회전문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진행되어 1월 2일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인하가족 환자사랑 송년의 밤



12월 28일 병원 3층 강당에서 인하대병원 직원들의 따스한 마음을 환자사랑 송년의 밤을 마련하였다. 병동간호팀, 특수간호팀 간호사들의 댄스공연, 병원동아리 고운소리, 직장인 가수 박광원의 찬조출연으로 흥을 한껏 돋웠고, 행운권 추첨을 통해 건강검진권, 가전제품 등 푸짐한 선물증정 등으로 환자, 보호자와 더불어 참여한 교직원들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간호부 학술대회 개최

12월 20일 13시부터 3층 강당에서 '연구결과에 따른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간호수행'이라는 주제로 간호부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문경희 팀장의 '환자안전 간호(JCI인증준비)'에 대한 특강이 있었고 한

태안 기름 유출지역 의료봉사



인하대병원(원장 우제홍)은 인하의료사회봉사단(단장 이홍식)을 태안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 파견하여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태안 파도리와 모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파도리에 의료봉사 본부를 두고 인근 지역인 만리포와 모항에도 의무실을 설치하고, 급급차도 파견하여 응급환자 대책에 민반의 준비를 하였다.

의료봉사단의 총 파견인원은 50여 명으로 의사 4명, 간호사 5명, 약사 1명, 행정지원 5명 등 15여 명이 한 팀을 이뤄 교대로 태안 재해지역에서 인술을 펼쳤다.

인하의료봉사단은 3군데서 하루 약 300명을 진료하였으며 8일간 총 2,420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인하대병원 임상시험센터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인하대병원 임상시험센터(병원장 우제홍, 임

인하대의대 서준규, 류지간 교수팀, 발기부전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열다



2007년 11월 25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10차 유럽성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인하대병원 비뇨기와 서준규, 류지간 교수 팀이 'COMP-angiopoietin-1(콤포엔지오포이에틴-1) 유전자 치료가 발기조직을 재생하고 혈관성 발기부전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남성 성기능장애분야의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지난 7월에 과학기술부의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의 2007년도 신규과제로 '국소적 혈관생성 및 신경재생 제어기술을 이용한 음경기능 재생'이 선정된 바 있는 서교수 팀은 "이러한 치료법이 향후 근본적인 발기부전 치료에 새장을 열 수 있을 것이며, 전임상 단계로 동물 실험을 거의 완료한 상태"라 밝혔다.

발기부전은 당뇨,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등 혈관성 요인이나 외상 등 신경손상 요인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데, 비아그라 등의 약물요법은 성생활시 마다 복용해야 하고 근본적 치료와는 거리가 멀다. 또 부작용스러운 성생활, 약물에 의한 부작용 등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서준규, 류지간 교수팀의 혈관생성 유전자 치료법은 혈관생성과 신경제어기술을 통해 음경을 완전히 재생시키는 획기적 치료법의 하나로써, 발기부전 치료에 있어 경구용 약물의 한계점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 교수팀은 국내외 우수 논문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고, 동일 분야의 연구로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여러 건 수행 중으로 이미 수월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또한 발기부전 분야에서 재생치료의 기반 기술(국소적 혈관생성-신경재생 제어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다. 또한 서 교수팀의 이번 연구는 향후 전신투여로 인해 임상으로 개발이 어려운 심혈관 질환, 뇌혈관질환 및 당뇨병 혈관합병증 등의 다양한 혈관질환의 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기반기술이 될 전망이다.

공연에 앞서 소아병동에서 최 이사장이 환아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빠른 쾌유를 빌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의료기기 산업화 현황 및 발전방향" 심포지엄을 개최

인하대병원은 12월 5일 오후 3시부터 병원 3층 제1강의실에서 '의료기기 산업화 현황 및 발전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현황 및 전망, 의료기기 기술개발분야의 산업화 발전 방향 모색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인하대병원, 365 홈케어(주)와 건강관리 서비스 업무제휴 MOU 체결

11월 28일 인하대병원 세미나실에서 인하대병원(병원장 우재홍)은 365홈케어(주)(대표 조계현)와 건강관리 서비스 업무제휴 MOU를 체결하였다. 금번 업무제휴는 국내 최초로 인하대병원은 건강검진 VIP고객은 평생 건강관리 시스템, 맞춤 건강 상담 시스템, VIP 전용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진료예약, 건강 문자 서비스와 건강 웹진 서비스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공개강좌개최

11월 27일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에서 '주부요실금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비뇨기와 박원희 교수의 건강공개강좌가 개최되었다. 박원희 교수는 "중년여성과 노년층에 많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전체 성인여성의 40%가 경험하고 있을 정도로 흔하며, 최근에는 30대 젊은 여성들의 발병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였다.

11월 29일에는 2007 제7회 고혈압주간을 맞이하여 고혈압 시민강좌로 신장내과 김문재 교수와 순환기내과 권 준 교수의 고혈압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무료 혈압측정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12월 18일은 내분비내과 남문석교수의 '당뇨병' 건강공개강좌를 개최하였다. 남문석 교수는 고혈당이 심화되면 나타나는 3多 증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상시시험센터장 남문석은 12월 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인하대병원 임상시험센터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는 인하대병원과의 지속적인 협조관계 유지 및 향후 임상시험 과제 수주의 증대를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는 서울의대 장인진 교수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이일섭 부사장의 주제발표와 인하대병원 임상시험센터의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의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양현재단, 인하대병원에서 자선 공연 개최



12월 6일 병원 3층 강당에서 환자를 위한 자선 공연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연은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유지에 따라 설립된 양현재단(이사장 최은영)이 마련한 것이다. 행사에서는 아카펠라의 크리스마스 캐롤송 및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가요·팝송 등을 선사했으며 공연 사이사이에 해설과 쿼트로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인천출입국관리소 정기순회 진료협약체결



11월 9일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 외국인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인하대병원과 순회진료 협약을 체결했다

병원 1층에 하나은행 출장소 개소



12월 11일 하나은행 출장소가 업무를 시작하였다. 지난 11월 5일 하나은행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상호간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하나은행은 병원 1층에 출장소를 개소하여 병원 고객은 물론 교직원들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인천시장상 수상 - 공향의료센터 김신애 수간호사, 의료정보과 이정로 의무기록사



2007년 12월 31일 인천중구청 종무실에서 공향의료센터 김신애 수간호사와 의료정보과 이정로 의무기록사가 인천시장상을 수상하였다. 평소 보건사업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질병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건설에 이바지하였으며, 전염병 예방·관리사업과 시민건강보존 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표창을 받았다.

'대한 골 연부 조직이식학회' 회장에 정형외과 문경호 교수 선임



11월 27일 강남성모병원 강당에서 개최된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8차 총회에서 문경호 교수가 제8대 회장에 선출됐다.

문 교수는 지난 5월 Washington DC에서 미국 조직은행 전문가 과정을 이수 및 9월에는 미국조직은행 전문가 시험에 합격했다.

핵의학과 김창호 기사장 -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2007년도 정기총회에서 '표창장' 수상



핵의학과 김창호 기사장은 11월 16일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2007년도 정기총회에서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솔선 참여하였고, 특히 보건사업에 헌신적으로 공헌하여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자원봉사안내

■ 자원봉사 신청 및 문의

◎자원봉사 안내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정성이 환자들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원봉사활동 확인증 발부, 진료비 감면 혜택(6개월 이상), 자원 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독감예방접종 지원

◎자원봉사 신청 및 문의

담당자 : 원공주, 신소영 ☎ 032-890-2873

이메일 : volunteer@inha.com

■ 성인 자원봉사

◎활동내용

외래안내, 도서봉사, 이미용봉사, 호스피스, 서비스 보조(중앙공급실, 수술장, 세탁장 등), 음료봉사, 소아청소년과 대기 환자대상 봉사(페이스 페이팅 풍선아트)

◎봉사시간

주 1회 이상을 기본 - 오전 : 9시 ~ 12시
오후 : 1시 ~ 4시

◎신청방법(수시접수)

자원봉사자실로 전화 → 내방면담 → 봉사부서 배치

■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기간

학기 중 사회봉사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전공/특기 활용을 위한 자원봉사(사회복지,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원하는 학생

◎봉사시간

1주 1회 3시간 이상

◎신청방법(수시접수)

자원봉사자실로 전화 → 내방면담 → 봉사부서 배치





인사동정

임원인사(재용 및 보직임명) _

경영부원장 및 경영회계담당 상무 김석규

신규임용 _

순환기내과 임상강사 우성일
내과 일반의 나소연

신규채용 _

병동간호팀 김소영, 송수경, 박은경

특수간호팀 이정민, 심 은, 송경미

강정인, 손경희, 권선영

공은선, 하양미, 김혜민

김나리, 권정애

외래간호팀 박선영

전근 _

영종메디컬센터 개원추진본부

최규철, 이강보, 김연희

간호부 간호행정단위책임자
특수간호팀간호단위책임자(SB)
외래간호팀
소화기내과

신정애
최윤정
조석희
주진희

표창 _

●친절봉사직원

교육수련부

병동간호팀

특수간호팀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노사협력팀

약제팀

외래간호팀

공향의료센터

공정식, 남궁욱

박지영, 장윤정

박정아

윤명관

김운영

이우진

오경선

서정자

박 현

●친절부서

병동간호팀(동12)

병리과

최화숙 외

한지영 외

●우수부서

병동간호팀(서17)

특수간호팀(ICU)

적정진료실

외과

소화기내과

의료정보과

시설팀

재무팀

임혜빈 외

정윤예 외

김영모 외

홍기천 외

이돈행 외

이선옥 외

전현석 외

변종범 외

●협력사

친절직원 상일BS(시설팀)

친절부서 신명파워(총무팀-교환실)

박재분

박소정 외

이달의 친절직원 _

12월 총무팀

01월 병동간호팀

심동수(중환자실 안내)

조화연(서10병동)

파랑새 소식



11월 파랑새 산행



지난 11월 1일 파랑새 회원들이 초 가을 대둔산으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드높은 가을 하늘처럼 환우들의 희망도 늘 푸르고 높길 바라며...

12월 파랑새 송년회



지난 12월 7일 16시 30분부터 중구 경동신신컨벤션 웨딩홀 부페에서 160여분의 환우 및 보호자, 의사간화, 방사선종양학과

간호사, 재활의학과 선생님들, 이 참석한 상태에서 연말을 마감하고 2008년의 길운을 희망해보았습니다.

☉ 행사

* 2월 중 파랑새 총회예정입니다.

●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 홈페이지 www.inha.com> 여성암센터

▶ 카페 [cafe.daum.net / inhabluebird](http://cafe.daum.net/inhabluebird)

▶ 문의 여성암센터 ☎ 890-2560

* 인하중앙의료원 발전기금 조성

■ 후원금 사용 용도

- ▶ 세계적 수준의 진료 및 임상의학 연구 지원
- ▶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참여 방법

-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일시 혹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단체,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납입 방법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신청후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 032-890-2885)
- ▶ 무통장 입금 : 거래은행 예금주 : 인하대병원 - 우리은행 : 106-276015-13-018 (▷12월 3일부터 하나은행 : 748-910002-39804로 계좌 변경)
-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 기부약정서 및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inha.com) 참조

◎ 총괄 현황 | 2007년 12월 31일 현재

기부자	약정액	납입총액	비고
220명	446,462,848원	300,856,335원	

◎ 기부자 현황 | 2007년 11월 01일 현재 ~ 12월 31일 현재

일 자	성 명	약 정 액	비고
'07. 12. 26	서규태	1,200,000원	청무세무그룹

퀴즈 퀴즈 제41회

※ 퀴즈 정답과 의견을 독자엽서에 작성하시어, 원내 고객센터 소리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 홈페이지(www.inha.com)를 참고하시고 인터넷으로 응모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1 중년남성의 우울증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맞지 않는 것은?

- ① 보통 중년이라 하면 40세에서 60세 사이를 말한다
- ② 인간의 노화는 35세부터 시작한다.
- ③ 우울증은 만성적이며 재발의 경향이 높다.
- ④ 중년의 우울증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다.

2 우울증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 ① 우울증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세로토닌(serotonin)이라는 뇌신경세포 속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② '트립토판(tryptophan)' 과 '오메가-3 지방산' 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음식이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한다.
- ③ 트립토판이 많이 함유된 음식으로 우유, 바나나, 두부, 땅콩, 계란, 살코기가 있다.
- ④ B6과 비타민 C, 엽산, 마그네슘은 세로토닌 생성을 방해한다.



3 지난 12월 인하대병원 ○○○○○는 3층으로 확장 이전하였다.

소화기내과 외래와 내시경센터가 같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진료 후 당일엔 검사를 곧바로, 한자리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국내 최초의 전자식 초음파 내시경 시스템을 도입하여 복부종양 질환과 폐질환의 조직진단과 병기 결정에 있어 또 한 차원의 도약을 이루게 되었다. 이외에도 확대 내시경 장비, 소장내시경 기기 또한 가장 최신형의 장비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도입되어, 소화기질환 치료의 최고 병원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소화기 내시경과 관련한 전문 간호사를 양성하여 내시경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측면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수면 내시경을 위해 넓고 편안한 회복실을 구상하였으며, 타병원과 차별화되는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화사한 인테리어 구현하였다.

※ 당첨자는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 원 | 고 | 모 | 집 ◆

원보 인하대병원은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글 재주가 없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 주변의 진잔한 이야기나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적은 글은 읽는 이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펜을 들어보십시오.

■E-mail : inhapr@inha.com

■보낼 곳 : 기획홍보팀

☎ 032-890-2602

편집위원

김명석, 이지현 | 기획홍보팀

유진희 | 간호부

강순자 | 원무보협팀

독 자 엽 서

보 내 는 사 람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07. 07. 09 ~ 2008. 07. 08

인천 우체국
제40050호

받 는 사 람



인하대병원
www.inha.com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06
인하대병원 기획홍보팀
원보편집실 앞

4 0 0 - 7 1 1



| 건강교실 안내 |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출산준비 부부교실	- 임신, 분만에 대한 지식 및 산모체조와 진통시의 적절한 호흡법 교육 - 참가비 7만원	매주 (토) 오후 2시	3층 회의실	(032)890-2170
항암제를 맞는 환자 및 보호자 교육	- 항암 화학요법이란 무엇인가? -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과 대처방안 -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식사요법	매주 1회 (교육 신청시 안내)	3층 암센터	(032)890-2580
유방암 환자 교육	- 유방암 환자의 식이 -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림파부종 관리 -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	1월 14일(월) 2월 11일(월) 오후 3시~5시	3층 1 세미나실	(032)890-2560



| 무료공개 강좌 |

강좌 일자	강좌 내용	진료과목	담당교수
1월 16일(수) 오후 3시	'사춘기가 빨리오는 아이들' 성조숙증과 조기사춘기에 관하여	소아청소년과	이지은
1월 29일(화) 오후 3시	중년 이후 여성의 건강관리	산부인과	이병익
2월 29일(화) 오후 3시	만성간염의 치료	소화기내과	이정일

● 강의일시 :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오후 15:00 ~ 16:00 ● 장소 : 병원 3층 대강당 ● 문의처 : 교육수련부 ☎032-890-2640~2 ● 인터넷 홈페이지(www.inha.com)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은?

☉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보내시는 분의 연락처

Quiz 정답

1

2

3

♣ 제40회 QUIZ 정답

- ① 4
- ② 2
- ③ 캡슐내시경

♣ 당첨을 축하합니다

- 한은정 의료정보과
- 박수진 내과계 집중치료실
- 박성목 안산 상록구 이동
- 김오선경 인천 서구 검암동
- 채윤미 인천 부평구 부평1동



인하대병원 진료안내

2008 1 1 현재

■ 대표전화 (032)890-2114

■ 외래진료예약 (032)890-2000

■ 종합검진센터 (032)890-333

■ 종합검진플러스센터 (032)890-3300

[illegible]

토요일 오전진료는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경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치과, 피부과만 가능하오니 기타 진료과의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의 사정에 따라 진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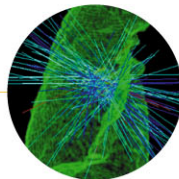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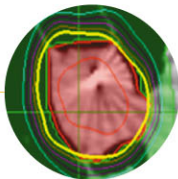
최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된 현존 최고의 암 치료기 - 무통 무혈 '로봇 사이버나이프'



Cyberknife

4차원 로봇 사이버나이프란?

유럽,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실시간 종양 추적 초정밀 로봇 사이버나이프는 신체 장기 움직임을 추적하는 시스템, 척추 암 자동 추적 시스템을 갖춘, 기존의 4세대 사이버나이프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4차원 사이버나이프로 실시간 영상 유도 기술, NASA의 우주 항법 기술, 컴퓨터, 로봇팔 등의 최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신체 어느 부위라도 안전하게 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로봇 사이버나이프 장점

- ▶ 4차원 실시간 종양 추적 시스템을 탑재 정상조직의 피해를 최대한 줄임
- ▶ 최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 되어 정밀성과 적은 오차율
- ▶ 정확도, 조사량의 2배 증가로 치료시간 반 이상 단축
- ▶ 표지자 없는 실시간 영상 추적 치료로 환자분들의 고통 경감
- ▶ 불규칙한 모양이나 크기가 아주 큰 종양도 치료 가능

문의전화

방사선종양학과 : 890-3070 신경외과 : 890-2370
사이버나이프센터 : 890-3076

>> 치료 가능한 질환

| 뇌종양 |

악성뇌종양 : 전이성 뇌종양, 다발성 뇌종양
양성뇌종양 : 청신경초종, 뇌수막종, 두개인두종, 뇌하수체종

| 체부종양 |

전립선암, 폐암, 간암, 췌장암, 소화기암, 유방암, 부인과암(자궁암, 난소암), 비뇨기계암 등 척추종양, 전이성 척추암, 원발성 척추암, 수막종, 척추신경초종

| 두경부종양 |

갑상선암, 안와종양, 상악동암, 비 인강암, 뇌기저부 종양

| 뇌신경, 혈관질환 |

뇌동맥맥기형, 해면혈관종, 삼차신경통

| 정신과질환 |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

이외에 재발암,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다발성 종양, 기존 방사선 치료에 효과가 없는 종양 등 다양